

# 이청아 “낮과 밤”, 연기 열정 강화시켜준 멋진 작품”

“낮과 밤” 하얀밤마을 생존자 ‘제이미 레이튼’ 역

“캐릭터 매력 끝까지 유지 못해 아쉬워...반성”

“초반 뛰는 장면, 여자 육상 금메달리스트 주법 참고”

“조만간 예능 출연...편안한 일상 보여주고파”

“낮과 밤”은 저에게 연기에 대한 열정을 더 강화시켜준 멋진 작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배우 이청아는 tvN 월화극 ‘낮과 밤’ 종영 기념 뉴스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지나해 모든 사람들이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다행히 큰 사고나 큰 탈 없이 마친거 같아 아쉬움보다 감사함, 후련함이 더 크다”며 소감을 전했다.

미국에서 FBI 요원을 하다 한국에 들어온 범의심리 전문가 ‘제이미 레이튼’으로 분했다. ‘하얀밤마을’ 생존자이자 남궁민의 동생으로 혼란과 고뇌를 겪는 캐릭터를 섬세하게 표현, 극의 몰입도를 높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는 “작년 한 해를 완전히 ‘낮과 밤’이라는 작품에 쏟은 것 같다. 촬영 기간은 8개월 정도였지만 처음 대본을 받고 준비 시기까지 합치면 10개월이 넘는 시간이었다”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드라마도 비슷하게 촬영을 시작했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회상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촬영장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온기가 넘쳤다. “현장에서 남궁민 선배가 우리 배우들은 누구 하나 모란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공감했다. 하지만 숲에 들어가면 늘 긴장감이 가득한 현장이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로는 마지막 회에 나왔던 비밀연구소 신을 꼽았다.

그는 “하얀밤마을에 관계된 모두가 모이는 큰 신이었다. 게다가 폭발도 일어나고 드라마 초반부터 언급되던 ‘괴물’도 등장하는 어렵고 집중해야 하는 신이었다. 각각 인물들에게 얼

린 감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거대했다”고 설명했다.

“도정우에게서 괴물의 인격이 튀어나오는 남궁민 선배의 장면을 먼저 촬영했다. 그 연기를 가까이 보고 싶어서 물레 카메라 감독 뒤로 자리를 옮겨 숨어서 지켜봤는데 약 3분 가량 이어지는 톤테이크 동안 같이 숨을 못 쉬겠다”라.

감독의 ‘컷’ 소리가 나서야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그때 ‘아, 이 신에서 내가 할 일이 이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본과 조금 다르게 했는데, 연기하고 나서 행복했다. 제 준비와 예상을 빚나가는 순간들 중 더 멋진 것이 발견될 때가 있는데 그 날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기억했다.

“낮과 밤” 이후 연기 트레이닝을 더 강화했다. “작품은 마쳤지만 쉬기보다는 이 작품을 하며 느꼈던 것들을 빨리 체화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

그는 “‘낮과 밤’을 하며 ‘내가 이 캐릭터의 매력을 끝까지 잘 유지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아쉬웠다”며 “때로는 극의 장르 분위기나 사건의 심각성에 잠식되기도 했던 것 같다. 대중을 좀 더 이해하며 연기했어야 했는데 라는 반성도 있었다”고 했다.

극 초반 뛰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하자 “이 질문이 들어올 거라곤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 기쁘다”고 웃었다.

“어릴 적 달리기를 잘 한다고 잠깐 육상부 선생님이 스카우트한 적이 있다. 그런데 반 년도 안돼서 그만뒀다”며 “뛰면 좋았는데 맨날

뛰니까 싫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제이미는 실험으로 얻은 뛰어난 두뇌 덕분에 신체능력도 향상된 케이스”라며 “제이미라면 가장 최상의 주법을 선택해 아주 안정적으로 체력을 유지하며 뛸 거라고 생각했다. 여자 육상 금메달리스트들의 주법을 보고 참고했다”고 말했다.

액션 장면을 찍다 부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작품 초반 어깨를 좀 심하게 다쳤는데 너무 고생했다”며 “나를 만나면 재부상을 당해서 한 달 정도는 가벼운 설거지도 할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보니 “모든 곳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고 늘 하던 유산소 운동도 못하니 대사 호흡도 떨렸다”며 “중간에 ‘으악’ 하며 머리를 감싸게 되는 몇 부가 저에게 있다. 몇 부인지는 비밀”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제이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는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검사 먼저 하고 부모님을 뵈러 갔을 것 같다”고 웃었다.

“양아버지와 양어머니를 먼저 뵈우 안아드렸을 것 같다. 그후 본인의 일상으로 돌아가 도정우 경정, 오빠에 대한 흔적을 찾기 시작했는 것이다.”

도정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연기에 임했다. 그는 “제이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공해원 경위(김설현 분)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며 “그 장면에서 제이미는 길로 말하진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가 분명 살아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런 감동도 모른다”고 귀띔했다.

다음 작품에서는 평범한 사람을 연기해보고 싶다. “누구의 삶에나 있는 일상적인 사건과 감정들로 흘러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요즘 집에서 ‘더 마이 프렌즈’와 ‘네 멋대로 해라’를 다시 보고 있는데 이런 톤을 가진 이야기들에서 한번 호흡해 보고 싶다.”

예능 출연도 계획 중이다. 그는 “회사와 짧은 예능에 출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대중에게 작품 이외의 노출이 많지 않아서 권하시는 것 같다”며 “이제 SNS도 자주 하는



데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느낌인가보다”고 말했다.

편안한 일상을 보여주고 싶다. “이전에 예능에 몇 번 출연은 해봤는데 너무 극과 극이었다. 너무 편안하고 좋았던 때도 있고 너무 불편하고 실망스러웠던 적도 있고. 이번에 하게 된다면 설정이 가미된 것이 아닌, 일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편안하게 하고 싶다.”

2002년 영화 ‘성남팔이 소녀의 재림’으로 데뷔, 2004년 영화 ‘늑대의 유혹’을 통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드라마 ‘호박꽃 순정’, ‘꽃미남 라면가게’, ‘운빨로맨스’, ‘단편 오피스’, ‘아름다운 세상’, ‘VIP’ 등과 영화 ‘천대 서울’, ‘동갑내기 과외하기 레슨2’, ‘더 파이브’, ‘다시, 봄’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다.

이청아는 “모든 작품들이 다 기억에 나지만 요즘 잔잔하게 평범한 일상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그리워서 그런지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작품이 떠오른다”며 “극중 ‘선희’라는 인물이었는데 아주 히스테릭하면서도 삶에 눌러 사는 불쌍한 인물이었다. 문득 다시 보

고 싶다”고 전했다.

슬럼프에 대해 묻자 “한 작품을 하면서 그 안에서 두세 번씩은 온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연기라는 것이 자기 몸이 재료이고 바탕이다 보니 내가 나를 어떻게 운용했는지에 따라 연기가 잘 흘러가는 날과 안 흘러가는 날이 너무 크게 나뉜다”며 “그 편차를 줄이려 배우들은 훈련을 하고 배역에 맞는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번 작품에서도 슬럼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롤모델이 있을까. 그는 “각 배우들에게서 사랑하는 부분들이 있다. 마릴린 먼로의 스타로서의 삶과 개인으로서의 고민에서 오는 그 간극, 장국영의 천진한 미소와 때로 너무 슬퍼하는 그 눈빛을 좋아한다”며 “케이트 윈슬렛의 연기에서 보이는 소박하고 진실한 표정들, 케이트 블란쳇이 가진 우아함과 강렬한 여성미를 동경한다”고 밝혔다.

“어떤 극에서도 그 안에서 그 인물로서 잘 존재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본인만의 색깔이 있고 연출자가 그 배역을 믿고 맡기고 싶은 배우가 되고 싶다.”

## 아이즈원, 작년 음반 누적판매량 129만장...여성아티스트 1위



Diary(幻想日記)로 43만9994장, 정규 1집 ‘블룸아이스(BLOOM\*IZ)’로 41만5827장, 미니 4집 ‘원리러(One-reeler) / 액트(Act) IV’로 37만8443장을 각각 판매했다.

아이즈원은 초동(발매 일주일 판매량) 판매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 2월 발매한 첫 번째 정규 앨범 ‘블룸아이스’는 35만6313장의 초동 판매로, 걸그룹 사상 최초로 초동 30만 장 고지를 밟았다.

이후 발표한 ‘오나이리 다이어리’는 38만9334장의 초동 판매량을 달성, 자체 기록을 경신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만 110만914장의 초동 판매 기록을 세웠다.

한편, 아이즈원은 2021년에도 다양한 활동으로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케이팝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유니버스(UNIVERSE)’의 오리지널 음악 콘텐츠 시리즈 ‘유니버스 뮤직’의 첫 번째 신곡 ‘디-디-댄스(D-D-DANCE)’를 발표했다.

뉴스스

그룹 ‘아이즈원(IZ\*ONE)’이 2020년 가장 많은 누적 음반 판매량을 기록한 여성 아티스트로 집계됐다.

1월28일 국내 최대 음반 집계 사이트 한터차트가 발표한 ‘2020년 연간 앨범 판매량 결산’에 따르면, 아이즈원은 2020년 연간 음반 차트(1월1일~12월31일) 여성 아티스트 중 누적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아이즈원이 지난해 기록한 총 음반 누적 판매량은 129만2919장이다.

미니 3집 ‘오나이리 다이어리(Oneiric

## 있지, 미국 MTV에 안무영상 선공개...“고난도 안무, 쾌감”

공식 유튜브 채널에 7분가량의 퍼포먼스 풀버전 게재

JYP엔터테인먼트의 차세대 걸그룹 ‘있지(ITZY)’가 미국 MTV를 통해 안무 영상을 선공개했다.

1월31일 JYP에 따르면, 있지는 지난 1월29일(현지시간) ‘MTV 프레스 아웃 라이브’(MTV Fresh Out Live)에서 안무 연습 영상을 선보였다. 30일에는 공식 유튜브 채널에 7분가량의 퍼포먼스 풀버전을 게재했다.

다섯 멤버들은 ‘낫 사이(Not Shy)’, ‘워너비(WANNABE)’ 두 곡을 새롭게 편곡한 사운드에 맞춰 한층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JYP는 “완벽한 합을 자랑하는 군무와 고난도 안무로 짜릿한 쾌감을 선사하는가 하면 예지와 채령은 화려한 댄스 브레이크로 시선을 붙잡았고, 류진은 ‘워너비’ 트레이드 마크인 ‘어게 춤’으로 걸크리시 매력을 폭발시켰다”고 소개했다.

2019년 2월 첫 싱글 타이틀곡 ‘달라달라’로 데뷔한 있지는 ‘신 유튜브 강자’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 엠넷 디지털 스튜디오 M2의 스페셜 댄스 채널 ‘스튜디오 춤’ 연간 톱 순위 수 랭킹에서 ‘워너비(WANNABE)’와 ‘낫 사이(Not Shy)’ 영상이 1위, 2위를 차지했다. ‘릴레이 댄스’ 카테고리에서도 각각 3위, 5위에 올랐다.

있지는 지난 22일 데뷔 첫 영어 앨범 ‘낫 사이’를 세계 동시 발표했다. 최근 코스모폴리탄, 세븐틴, 버즈피드 등 여러 해외 매체는 있지를 주제로 한 영어 콘텐츠를 오픈했다.

있지는 오는 2월8일 글로벌 K팝 채널 헬로 82(hello82) 유튜브를 통해 ‘있지 플레이어인 워드 있지’를 공개한다. 외국인 아이들과 함께 인터뷰, 퀴즈, 메이크오버 등을 진행하는 영어 콘텐츠로 매력을 전한다.

한편 있지는 2월21일까지 공식 팬클럽 ‘민지(MIDZY)’를 모집하고 있다. 3월20일 개최 예정인 ‘팬 파티 라이브’ 등에 혜택이 주어진다.



## 강호동, MBN ‘보이스킹’ MC...4월 방송

대한민국 남자들의 치열한 노래 경연 프로그램



방송인 강호동이 ‘당신이 바로 보이스킹(이하 보이스킹)’ MC 자리를 확정지었다.

MBN 측은 1월29일 “강호동이 2019년 ‘보이스킹’에 이어 ‘보이스킹’ MC로 이어가게 됐다”며 “대한민국 남자 스타들의 노래 실력과 끼를 전하고 숨은 노래 실력자 발굴에 힘을 보탬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4월 방송될 MBN 신규 음악 서바이벌 ‘보이스킹’은 개성 만점 대한민국 남자들의 치열한 노래 경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발라드, 댄스, 록, 트로트 등 각 장르의 노래 실력자들부터 화려한 퍼포먼스의 레전드 가수까지, 단 하나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남자 출연자들의 치열한 질주를 그린다.

우승자에게는 1억원의 상금과 주요 음원 사이트를 통한 음원 발매 등 각종 특전 및 부상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뉴스스

## 웨이브 ‘뽀로로’서 성인물 노출 물의

“기술적 오류 사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웨이브가 ‘뽀로로 극장판’ 콘텐츠에 성인물이 등장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웨이브는 1월30일 공지사항을 통해 “29일 파일 복구 과정에서 ‘뽀로로 극장판’ 콘텐츠 재생 중 수 초간 성인물이 섞여 나오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 현상이 발견돼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 아동 및 유아 시청 콘텐츠에

서 발생한 사안인 만큼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뽀로로 극장판 영화를 보는데 알 수 없는 성인물 영상이 등장해 당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주 시청 대상이 아이들이 ‘뽀로로 컴퓨터 왕국 대모험’ 제목의 영상이지만, 성인 남녀가 침대에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